

2025. 01. 05. 14:44

월요일입니다. 오전에 외래를 본 후 좀 잤습니다. 전 항상 깊게 못자니 언제나 피곤한가 봅니다. 거의 2시간 반은 잔 것 같습니다.

약 1.5시간 후에는 복원장 면담인데 잠시 머리로 영민하게 만들겸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급습해 대통령을 생포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때마침 가족 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전 다른 것보다 미국의 능력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이렇게, 피해하나 없이 잡을 수 있다니요. 사실 북한의 김정일은 조차 얼마든지 즉일 능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군요.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국제사회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힘이 있는 국가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정의를 상대국가에게 강요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니깐요. 앞으로 하나 둘 씩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국지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들간의 총력전이 아닌, 전세계의 동시다발적 국지전인 것이죠. 예휴 제 딸아이는 전세계가 모두의 모두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시기에 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딸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는 외래를 보며 동축케이블을 샀습니다. 국내 케이블 제조회사인데 마침 애매하게 남은 케이블이 있다고 해서 냉큼 샀습니다. 가격도 제가 생각한 것의 1/3 밖에 되지 않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도 약 5,000 채겨주고 KARL에도 약간의 광고 글을 올려 줬습니다. 많이 팔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특정 회사들을 제외하면 수요가

없는 전선이니깐요. 사실 국내 제조업이 모조리 죽어나가는 세상이라서
이런 회사라도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후 4시에는 부원장 면담이 있습니다. 당직비 만이라도 올려주면 좋겠는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부원장 면담에
월급날이기도 해서 뭔가 마음이 복잡하네

